

## 【 1 】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

첫 번째 안건은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 방안, 이름이 좀 길지만 그동안 총리 규제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규제 완화에 건의를 받았고, 그걸 검토한 끝에 47건의 규제혁파를 결정했습니다. 그걸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.

제가 지방행정을 조금 해봤습니다만, 몇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규제가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지방과 지역의 현실에 맞게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게 필요합니다. 또 하나는 과거와 달리 중앙 정부가 모든 정책을 만들어서 지방에 보내는 그런 시대는 거의 끝나갑니다. 경우에 따라선 지방이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오히려 중앙을 향해 발신하고 또 다른 지방도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. 그 점에서는 중앙 정부가 현실을 더 내다 보고 규제를 설정하거나 철폐하거나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. 반대로 지방 자치단체가 규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더러는 법령에 근거가 꼭 있지도 않은 규제를 만들거나 행정 편의 때문에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. 더 나쁜 것은 법령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을 모르거나 잘못해석해서 쓸 데 없는 규제를 만드는 경우입니다.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 하면 중앙 정부의 뜻을 반대로 해석해서 시행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. 그런 것들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.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규제가 중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중앙의 규제가 늘 지역의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더욱 규제 철폐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

저는 지사시절에 도청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법령과 중앙 정부의 시책, 그것이 우리 전라남도 규제의 마지노선이다. 우리가 규제를 단 한 건도 만들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. 이런 지침을 강력하게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.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.

## 【 2 】 초등 유휴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활용방안

두 번째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. 이걸 오늘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아이를 둔 부모들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에서 아이를 맡아주시는 것이 더 안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시다만, 교육의 현장에서는 관리의 책임, 특히 안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, 다른 복합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등의 현장에서의 신중론이랄까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

이 문제는 오늘 참석자 전원이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. 이미 이 문제가 청와대 청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는 이미 돼 버린 상태고 토론 자체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을 서둘러야 합니다. 제가 두 부처 차관님으로부터 얘기를 쪽 들어보니 그렇게 큰 차이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마지막으로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. 오늘 토론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뭘 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상상해주시기 바랍니다.

장사익씨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두물머리란 노래가 있습니다. 그 가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남한강은 남을 버려서 한강에서 만났구나, 우리는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.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. 두 부처가 이 노래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.